

# ‘시세차익 6억’ 로또아파트 잡자... 끝 없는 입장행렬

## Q 르포 | ‘디에이치 자이 개포’ 견본주택 가보니

더블역세권에 강남8학군 등  
입소문 타고 수요자들 인산인해  
입장까지 최대 3시간 기다려야  
전용면적 63·84㎡형 관심 최고

지난 주말 동안 ‘디에이치 자이 개포’ 견본주택은 한마디로 인산인해였다. 2~3시간을 기다려야 모델하우스 안에 들어갈 정도였다. 오후 들어선 더이상 줄을 설 필요가 없다는 통보가 돌아왔다. 이미 예약이 끝났다는 것.

지난 16일 오전 10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GS 건설·현대엔지니어링) ‘디에이치 자이 개포’ 견본주택 앞은 분양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들로 긴 줄이 생겼다. 입구에서부터 견본주택이 자리 잡은 양재화물터미널 밖까지 줄이 이어졌다. 이날 견본주택을 찾은 수요자들의 열기는 대단했다.

송파구에 거주하는 A씨(52)는 “아침 8시부터 줄을 서서 기다렸다. 견본주택 안으로 들어오는 데만 두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서울 일원동 일대에 들어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15개동 총 1996가구 중 1690가구(전용면적 63~176㎡)가 일반 분양된다.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신분당선 대모산 입구역 사이에 위치한 ‘더블역세권’이다. 강남8학군 내에 속한 데다 대치동 학원가와도 인접해 학부모들의 관심이 컸다.

견본주택 내부 역시 ‘인산인해’였다. 특히 실수요자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됐던 전용 84㎡와 63㎡에 관심이 쏠렸다.

양천구 목동에서 온 주부 B씨(43)는 “30평대 일반분양 상담을 받으러 왔다.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가격보다 저렴하고 학군이 좋아서 알아보러 왔다”고 말했다.

디에이치 자이 개포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4160만원이다. 전용 84㎡의 경우 분양가는 12억원 초반에서 14억원 초중반이다. 가장 작은 주택형인 전용면적 63㎡는 9억8000만~11억원 선이며 전용 76㎡는 층에 따라 11억5000만원~13



16일 오전 방문객들이 ‘디에이치 자이 개포’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있다.



/정연우 기자

억2000만원이다.

이밖에 분양가는 전용면적별로 ▲103㎡(15억7000만~17억2700만원) ▲118㎡(16억9700만~19억 2600만원) ▲133㎡(18억4100만~20억4800만원), 펜트하우스인 173㎡와 176㎡는 30억원대로 책정됐다.

앞서 일반분양된 ‘래미안 블레스티지’나 ‘디에이치 아너힐스’,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의 분양권 시세가 전용 84㎡ 기준 20억~21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6억~7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가능한 셈이다.

반면 발길을 돌리는 이도 있었다. 디에이치 자이 개포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안돼 분양대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인과 함께 견본주택을 찾은 C씨(41)는 “좋은 기회라는 말이 많아서 왔지만 10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마련하는 것은 현재 어려워 보인다”고 아쉬워했다.

한편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인터넷을

통해 오는 21일 해당지역 1순위를 시작으로 22일 기타지역 1순위, 23일 해당·기타 지역 2순위 청약에 받고 29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방문객들이 많아 견본주택 오픈 시간을 오후 8시 30분까지 연장했다. 하루 동안 1만5000명이 방문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중도금 대출과 위장 전입 규제가 있어 청약률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oo.co.kr



### NH투자증권

## 원금부분지급 주식형 ELS 등 총 5종 공모

NH투자증권은 19일부터 21일까지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원금부분지급 주식형 ELS 1종 등 총 5종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판매하는 제16156회 ELS는 애플(Apple), 아마존(Amazon)을 기초자산으로 하며, 원금 90% 이상을 지급하는 만기 1년 상품이다. 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가격이 최초기준가 대비 102%(4개월·8개월) 이상인 경우 연 12.0%의 수익을 제공한다.

조기상환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만기 평가일(12개월)에 두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격보다 상승했다면 기초자산 상승률이 낮은 종목 상승률만큼 수익으로 지급한다.

만기평가일에 두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보다 내려갔다면 하락률이 큰 종목의 하락률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단, 원금손실은 최대 10%로 제한된다.

이번 상품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해외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지만 원화로 청약하는 상품으로 환율에 따라 수익이 변동되지 않는다.

이번 청약은 NH투자증권 전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각 상품별로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다.

/김문호 기자 kmh@

## 산업용 동판생산... 사용처 확대에 구리값 상승 ‘수혜’

### 株라쿨라의 종목 이구산업

“글로벌 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속에 향후 국제 구리 가격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리 가격과 실적 연관성이 높은 이구산업에 관심이 유효해 보인다.”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최성환 수석연구원은 18일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고, 사물인터넷(IoT) 시대를 맞아 전자제품 사용이 늘어나면서 국제 구리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구산업은 비철금속(구리) 전문 가공업체로, 반도체와 전자제품, 자동차 등에 들어가는 산업용 동판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이구산업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제품 가격에 즉각 반영하고 있어, 국제 구리 가격 변동에 따라 마진률이 달라진다. 구리 가격이 오르면 수익성이 개선되지만, 구리 가격이 하락하면 수익성이 악화되는 구조다.

[그림 1] 국제 구리 가격 및 이구산업 매출액 추이 (단위: 원/달러, 십억원)



실제 국제 구리 가격이 연초보다 18.5% 오른 지난해 이구산업의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43.1% 늘어난 142억원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최 연구원은 앞으로도 국제 구리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일반적으로 전기차에 필요한 구

리의 양은 내연기관 차량보다 3~4배 정도 많다”며 “전기차 보급 확대가 구리 가격 인상을 견인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일상 생활 곳곳에 동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미세먼지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공기정화 시스템에 항균동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고, 의료용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도 최근 주요 광석 생산국인 칠레, 페루, 중국의 채굴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환경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제련 업체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어 국제 구리 가격의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리서치알음은 이구산업의 올해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10.4% 늘어난 2530억원, 영업이익은 16% 늘어난 165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이구산업에 대해 긍정적 투자 의견과 함께 적정 주가 3300원을 제시했다. 현재 주가 대비 49.3% 가량 상승 여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손영지 기자

## 국내외 주식형펀드, 수익률·순자산 모두 好好

### 주간 펀드 동향

####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

글로벌 경기 호조세가 이어짐에 따라 국내외 주식형펀드 모두 견조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에 순자산도 증가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한 주(3월 9일~15일)간 코스피지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전주 대비 2.44% 상승한 2492.38포인트를 기록했다.

해당기간 외국인외국인이 8147억원 순매수가

#### (지역별 수익률)

지역	펀드수	순자산	수익률		
			1주	1개월	연초이후
중화권	10	165	2.46	5.05	6.71
친디아	11	430	2.22	1.73	3.64
아시아퍼시픽	14	95	2.06	4.24	4.50
일본	41	653	2.01	3.90	-2.74
아시아퍼시픽(ex)	24	1,457	1.95	2.95	2.97
인도	25	902	1.93	-3.83	-5.65
브릭스	27	813	1.73	4.30	8.09
중국	163	9,615	1.71	4.45	6.64
신홍아시아	32	990	1.50	2.65	6.36
글로벌	172	7,356	1.29	4.18	3.20
글로벌이머징	30	223	1.25	3.61	6.24
북미	39	1,217	0.92	3.72	3.21
유럽	39	934	0.82	1.43	-1.62
중남미	10	100	0.63	3.74	8.38
베트남	13	1,779	0.62	5.18	12.99

단위: 개, 십억원, %

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 시가총액 기준 대형주(2.59%)·중형주(2.21%)·소형주(4.08%) 모두 고루 상승했다. 해당기간 국내 주식형펀드 수익률은

2.98% 상승했다. 이에 순자산은 직전 주 대비 1조5920억원 늘었다. 이는 지수 하락에 베풀하는 ‘인덱스주식코스피 200’ 펀드로 자금유입이 가팔랐던 영향이다.

해외 주식형펀드는 1.45% 올랐다. 지역별로 분류한 결과에서 중화권(2.46%)과 친디아(2.22%)가 비교적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 한편 러시아(-0.48%) 및 신흥유럽(-0.79%) 펀드는 부진했다. 순자산은 3380억원 늘었다.

한 주간 가장 성적이 좋았던 국내주식형 펀드는 인덱스주식 기타 유형인 ‘삼성코스타150 1.5배레버리지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C1’(7.05%)으로 나타났다.

해외 주식형펀드에서는 신흥아시아주식으로 분류되는 ‘미래에셋인덱스로차이 나H레버리지2.0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종류A-E’가 5.92%의 수익률로 가장 높은 성과를 거뒀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